

AUTHOR 박희석

TITLE 가난과 구제에 대한 칼빈의 사상

IN 총신대 논총

Vol. 29 (2010): 82-111

## 가난과 구제에 대한 칼빈의 사상

박희석\*

[ 목 차 ]

1. 서론	4. 교회와 목회자의 근검절약
2. 기독교인들의 가난한 생활	5. 구제
3. 교회와 가난	6. 결론

### 1. 서론

칼빈은 정치, 경제, 사회사업 전문가가 아니었지만 목회자와 신학자로서 자신의 목회에서 당면한 가난과 구제 대해 성경말씀을 근거로 가르치고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은 성취하였으므로 가난한 사람에게 고리대금으로 이자는 받을 수 없지만 사업을 위해 돈을 빌렸을 경우 이자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다.<sup>1)</sup> 자본주의 제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오늘날의 금융제도를 촉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막스 웨버는 칼빈이 자본주의를 태동하게 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다.<sup>2)</sup>

\*신학과 교수

- 1) L. F. Schulze, "Calvin on Interest and Property-Some Aspects of His Socio-economic View," vol 11, Richard C. Gamble, ed. *Article on Calvin and Calvinism* (New York & London: Garland Publishing, Inc., 1992), 187-190.
- 2) Max Weber,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trns. Talcott Pars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 1958), 98-128.

그는 돈과 재산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도구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수단을 통해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셨다.<sup>3)</sup> 칼빈에 따르면 재산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일반은총적 은혜다. 제8계명을 설명하면서 "우리 각 사람이 소유한 것이 그저 우연히 그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만유의 주께서 분배해 주신 것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다.<sup>4)</sup>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고 믿는다.<sup>5)</sup>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돈과 재산을 주시므로 인해 자신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가르친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재산의 공동소유를 반대한다. 16세기에 일부 재세례파들은 재산공유를 주장하였다.<sup>6)</sup> 칼빈은 재세례파들이 행 2:42-44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고"를 인용하여 모든 교인은 전 재산을 팔아 동일하게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을 꾸짖고 반박하고 있다.<sup>7)</sup> 실제로 그들은 공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헌납하게 하여 모든 재산을 공유하였다. 심지어 아내까지 공동으로 소유하는 광란의 극치를 표출한 분파도 있었다.<sup>8)</sup>

- 3)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홍치모 역, (서울, 성광문화사, 1985), 55-56.
- 4) 기독교강요, 2.8.45.
- 5) *Commentaries on Deuteronomy*,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63), 400-401.
- 6) William J. Heynen, *Calvin and the Ana-Baptist Radica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 1981), 296. 호프만(Melchior Hoffman), 후터(Jacob Hutter)의 그룹, 그리고 주리히 재세례파 지도자인 콘라드 그리벨(Conrad Grebel) 등은 재산의 공유와 공유를 주장하고 시행하였다.
- 7) *Commentarie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vol. I*,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63), 87-88.
- 8) Henry R. Van Til, 아근삼 박사 역, 칼빈주의 문화관 (부산: 성암사, 1975), 148. 아내를 공유한 그룹은 육체방종파인 Carpocretes 일파들이다. 재세례파들은 대부분 금융주의자들이었으나 지나친 금융은 오히려 극단적 방종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칼빈은 단호하게 소유의 사유재산 원리를 강조한다. 누기는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도록 가르친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원하여 자신의 사유재산 일부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이라고 가르친다.<sup>9)</sup> 특히 칼빈은 1545년 '자신들을 영적이라 부르는 방종파라는 환상적이고도 격렬한 종파에 반대하여' 논문에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한다.<sup>10)</sup> 칼빈은 재세례파들이 마19:21과 행4:32을 인용하여 재산공유를 강조하는 주장을 강하게 반박한다.

자본주의와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있게 마련이다. 칼빈은 가난과 고통을 하나님이 냉대하는 증거로 생각하지 않으며, 반대로 번영과 재산의 풍요로움이 개인적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나 구원을 위한 선택의 증거로 여기지 않는다.<sup>11)</sup> 칼빈은 이 땅위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인정하였지만, 개인의 풍요와 고통이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증거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는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것에 대해 만족하라고 가르친다. 어떤 경우라도 타인의 사유재산을 탐내지 말라고 가르친다. 나아가 빚이 있으면 성실하게 갚아야 한다고 강조한다.<sup>12)</sup>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분배해주신 타인의 재산이기 때문이다. 칼빈은 사유재산을 인정과 동시에 그 모든 사유재산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칼빈의 기독교강요와 주석 및 설교와 기타 그의 저술에서 사용하는 가난이라는 용어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sup>13)</sup> 가난이라 할 때

9) *Ibid.*, 128-130.

10) Benjamin Wirt Farley, ed. *John Calvin Treatises Against the Ana-Baptists and Against the Libertines*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82), 289.

11) *Commentaries on Psalms*, vol. II, (Grand Rapids: Eerdmans Pub. Co., 1963), 112-114.

12) *Ibid.*

13) Bonnie Lynn Goding Pattison, "The Concept of Poverty in Calvin's Christology and Its Influence on Hi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and Church," Ph. D. diss. (New Jersey: Princeton Seminary, 1997), 132-135.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의미는 절대빈곤(destitute) 혹은 물질적 필요를 크게 느끼면서 만족감이 없는 것을 뜻한다. 칼빈이 사용하는 가난의 개념은 전쟁이나 종교적 박해, 질병, 사회적으로 낮은 신분 등으로 어려움이나 고통을 당하는 것들은 모두 가난이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 불상하고 동정 받는 사람, 불행한 사람,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 고통을 당하는 사람, 멸시당하는 사람, 등도 가난한 사람이다. 칼빈에 따르면 이 땅에서 순례자로 생활하는 성도는 높은 지위보다는 낮은 위치, 부자보다는 가난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보인 모범이며 동시에 가르침이기 때문이다.

16세기에도 자본주의 발달로 인해 생활비는 급등하였으나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았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심화되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각양 다양한 은사와 재능을 주셨으므로 빈부의 격차는 필연적이다. 칼빈은 빈부의 차이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정한다.<sup>14)</sup> 따라서 경제적 가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6세기 유럽은 천주교회의 박해로 인해 개신교도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수많은 피난민들이 유럽 전역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네바로 몰려들었다.<sup>15)</sup> 그들은 망명, 투옥, 고문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순교도 하였다. 칼빈의 관점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가난한 자들이다. 사회적 신분과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여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칼빈은 제네바의 목회자로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고통당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각종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야 할 형편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난, 고통, 질병, 투옥, 재난, 사망 등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들을 향한 성도와 교회의 의무를 밝혔다. 칼빈은 사회사업가는 아니었

14)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58.

15)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His Socio-Economic Impact* (Atlanta: Knox Press, 1978), 105-106. 합법적 망명자들이 1542-1560 사이에 20,000명 이상 등록되었다.

으나 성경말씀의 원리에 따라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에 대해 성도와 교회를 가르치고 또 그대로 시행하였다. 칼빈의 가르침과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기독교인들의 가난한 생활

칼빈은 기독교인이 검소한 생활과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위에서 생활하는 동안 친히 가난과 겸손에 대해 많은 모범을 보이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였기 때문이다.<sup>16)</sup>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이시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인간의 모양으로 탄생한 것이 구속사역의 출발이다.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왕이 아닌 가장 가난하고 낮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왕궁이 아닌 비천한 구유에서 탄생하셨다.<sup>17)</sup> 그리스도의 말구유 탄생 사건은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가난한 모양으로 나타났으나 그가 참으로 구세주로서 희생 제물이 될 것임을 출생부터 보여준다고 칼빈은 가르친다. 그리스도께서는 탄생부터 일생동안 청빈하고 낮은 종의 생활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비천한 곳에서 출생하고 머리 돌 집도 없이 생활하신 이유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그와 같은 생활을 하라는 교육을 하기 위함이다.<sup>18)</sup>

또한 칼빈은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은 사건을 그리스도의

가난한 모형을 대변한 것으로 해석한다.<sup>19)</sup> 주님은 사악하고 불의한 자 앞에서 정죄를 받았다.<sup>20)</sup>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 옷을 제비뽑아 나는 사건도 주님의 가난과 겸손을 보인 것이다.<sup>21)</sup> 칼빈은 다윗이 시22:18에서 “내 겹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고 한 말씀은 “부와 영광”이 찢겨진 것으로 가르친다.<sup>22)</sup> 그리스도가 빌라도의 법정에서 헤롯에게 조롱을 당하고 십자가 위에서 옷이 찢겨져 벌거벗은 것은 주님의 낮아짐(Christ's humiliation)을 나타내는 의미심장한 사건이다.<sup>23)</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가난, 낮아짐, 재판 받으심, 멸시, 조롱, 옷의 제비 뽑힘, 십자가에 달림 등은 구세주로서 영적인 왕임을 나타보인 증거이다. 구약 선지자들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므로 만왕의 왕으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주님은 유대인들이 갈망하는 강하고 부유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가난하고 비천한 왕으로 나타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sup>24)</sup>

칼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가난과 십자가의 고통이 구속사역의 방편이었다. 이 그리스도의 가난이 칼빈의 모든 신학의 중심이 된다. 그리스도의 가난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하는 길이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를 본 받아 가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칼빈은 가르친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가난과 고통을 나타냄과 동시에 주님이 만왕의 왕 되심을 보여주고 있다. 칼빈이 기독교인의 생활을 논할 때는 항상 그리스도의 가난과 고통의 절정을 이루는 십자가를 질 것을 강조한다. 십자가의 가난한 경험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체험한다고 칼빈은 가르친다.

칼빈은 마5:3과 눅6:20을 주해하면서 ‘가난’에 대한 의미심장한 교훈을

16) Ronald S. Wallace, *Calvin's Doctrine of the Christian Life* (Tyler Tx: Geneva Divinity School Press, 1959), 51.

17)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Luke*, vol.1. 73-74.

18) *Commentaries on 2nd. Epistles of Paul to the Corinthians*,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64), 110-111.

19) 기독교강요, 2.16.5

20) *Ibid.*

21) *Ibid.*

22) *Ibid.*

23) *Ibid.*

24) John F. Jansen, *Calvin's Doctrine of Work of Christ*, (London: James Clarke and Co. LTC., 1956), 89.

한다. 마태는 심령이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하지만 누가는 가난한자는 복이 있다고 기록한다. 칼빈은 비교되는 이 두 말씀은 동일한 교훈을 한다고 가르친다. 칼빈에 따르면 마태가 심령이 가난한자가 복이 있다고 한 것은 십자가를 통한 가난과 고통의 연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sup>25)</sup> 그러나 칼빈은 가난을 영적 의미로만 해석을 하지 않는다. 영적 의미와 함께 육체적 가난의 경험도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다.<sup>26)</sup>

칼빈은 고후 12:10의 주석에서 가난의 의미를 밝힌다. 바울은 자신의 질병을 위해 세 번이나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하였다. 바울은 12:10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곧 강하다” 하였다. 칼빈은 바울이 약하고, 능욕 당하며, 핍박과 곤란을 당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최고의 고통을 당하는 순간으로 이해한다.<sup>27)</sup> 하나님께서 바울을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게 한 후 그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높이 세웠다.<sup>28)</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무덤까지 내려갔으나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음을 상기 시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장사지내는 일이 없었다면 영광스러운 부활도 없었다. 부활은 죽음 후에 오는 것이다. 바울이 당한 고통과 가난은 인간이 경험 할 수 있는 총체적 어려움을 언급한 것이다.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통처럼 가난, 핍박, 수많은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sup>29)</sup>

칼빈은 바울이 자신의 강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가난(poverty), 약한 것들(afflictions)을 자랑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약한 것들,

25)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Luke*, vol.1. 169-170, Lynn Goding Pattison, 177-181.

26) *Ibid.*

27) *Commentaries on 2nd. Epistles of Paul to the Corinthians*, 155-162.

28) *Ibid.*

29) *Ibid.*

자기불신, 비천함 등을 당하는 모범적 사례가 된다고 한다.<sup>30)</sup> 바울은 자신이 당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다. 육체적으로 약할 그 때 영적으로 강하여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많은 성경을 기록하였다. 바울이 가난하거나 약하지 않았다면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였겠지만, 영적으로는 약하여 성령을 받지 못하였을 것이며 따라서 성경 기록도 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바울에게 질병과 고통이 계시를 받아 성경을 기록하는 방편이 되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의 가난과 고통은 육체적으로는 약하지만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친다.<sup>31)</sup>

칼빈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는 것과 호화로운 파티를 하는 것을 정죄하지 않는다.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이나 파티를 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sup>32)</sup> 이 부자의 큰 죄는 자신의 대문간에서 병에 앓아 먹을 것도 없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은 데 있다.<sup>33)</sup> 부자의 죄는 화려한 옷을 입고 날마다 맛있는 음식으로 즐기는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가난(poverty)과 질병(distresses)으로 고난을 당하는 나사로는 굶주림(hunger)과 추위로 고통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버려둔 것이다.<sup>34)</sup> 부자는 그가 먹고 남는 음식도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자기 집에는 나사로의 아픈 상처를 활야 위로하였지만 부자는 개로부터도 자비심을 배우기를 거절하였다.<sup>35)</sup>

나사로의 가난과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가 아니다.<sup>36)</sup> 나사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질병과 십자가 뒤에 감추어져서 사람의

30) *Ibid.*

31) *Ibid.*

32)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Luke*, vol.II, 116-122. Lynn Goding Pattison, 198-202

33) *Ibid.*

34) *Ibid.*

35) *Ibid.*

36) *Ibid.*

눈에는 가난과 상처만 보일 뿐이다. 썩고 냄새나는 육체가 하늘의 천사가 하늘로 데리고 가는 고귀한 영혼을 덮고 있었다.<sup>37)</sup> 칼빈은 가난과 고통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긋지긋하게 역겹고 썩은 냄새(loathsome and rotteness)가 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방편이다. 그래서 십자가는 땅위에서 부끄러움과 멸시를 당한다.

칼빈은 말하기를 인간의 눈에는 가난과 고통은 저주로 보일 뿐이다.<sup>38)</sup>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세속적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에는 가난과 십자가는 마치 부자가 나사로를 바라보듯 지긋지긋하게 역겹고 냄새나는 고통으로 보일 뿐이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가난과 십자가 뒤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나사로를 환영하는 것과 같은 고귀한 영혼이 자리 잡고 있다.<sup>39)</sup> 칼빈은 성도가 가난과 십자가를 통해 훈련시키지 않으면 여지없이 방종과 부패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한 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 3. 교회와 가난

교회는 이 땅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다. 칼빈은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고 낮은 생활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신 십자가의 원리를 교회에 적용시키고 있다.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가난하고 비천한 발자취를 지상에 남아있는 교회가 걸어가도록 하나님이 규정하셨다고 믿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가난과 십자가가 구속사역의 표지(mark)이었던 것처럼 교회도 가난과 고난이 표지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한다.

교회와 성도가 당하는 고난은 불의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

37) *Ibid.*, 408-409.

38) *Commentaries on 2nd. Epistles of Paul to the Corinthians*, 161.

39)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Luke*, vol. II, 117-118.

낼 뿐 아니라 교회의 영적성장과 성숙을 위해 자극제가 된다. 마 24:32의 무화과나무의 비유에서 칼빈은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전에 교회가 큰 환란 당할 것이라는 주제를 논하고 있다.<sup>40)</sup> 그는 이 비유에서 교회가 당하는 박해와 환란이 교회의 본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칼빈은 주님이 무화과나무의 계절을 교회가 당하는 환란에 비유한다고 이해한다. 무화과나무는 겨울에는 강하고 단단하지만 봄에는 나무의 질이 부드러워지고 약해지는데 이때 새로운 싹이 발생한다. 가지가 약하고 힘이 없어지는 상태는 나무가 시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 생명이 나오는 징조다. 교회가 박해나 환란을 당할 때 외견상 약해보일 때도 있지만 그것이 생명력을 잃는 것은 결코 아니다. 완전히 죽은 것처럼 보이는 연약한 봄의 나뭇가지를 통해 나무에 수액과 힘을 공급하듯 외적으로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박해도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한다고 칼빈은 믿고 있다. 주님은 박해와 환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한다.<sup>41)</sup> 칼빈은 “교회가 박해를 받는다고 하여 생명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는 십자가와 고난을 통해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기대하게 된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의 걸 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는 말씀은 이루는 것이라(고후 4:16)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sup>42)</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십자가와 성도가 경험하는 박해와 교회가 당하는 환란을 같은 원리로 비교하고 있다. 성도와 교회가 겪는 박해와 환란을 통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게 된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의 박해는 걸 사람을 후패하게 만들지만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 썩지 않는 영광을 준비하게 된다. 칼빈은 고후 4:16을 인용하여 “교회가 박해로 연약해지는 것이 영원한 영광을 준비하는 것이라” 한다.<sup>43)</sup> 박해와 환

40)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Luke*, vol. III, 97. Lynn Goding Pattison, 217-219.

41) *Ibid.*, 98-99

42) *Ibid.*

43) *Commentaries on 2nd. Epistles of Paul to the Corinthians*, 62-63.

란으로 인해 우리의 걸 사람이 후패해진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생활 즉 건강, 부, 명예, 가족, 친구, 등 생활의 모든 기반이 무너지고 황폐하여 진다는 뜻이다.<sup>44)</sup> 우리의 걸 사람 즉 육체가 가난과 박해로 후패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더욱 건강하여 진다. 칼빈은 우리의 걸 사람이 후패하는 것을 통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기 때문에 걸 사람의 후패를 슬퍼하지 않는다.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걸 사람의 후패는 잠깐이요, 눈으로 볼 수 없는 속사람의 변화와 영광은 영원하다. 우리가 잠깐 동안 받는 박해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이루기 때문이다.<sup>45)</sup>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영원한 상급은 이 땅위에서 잠시 동안 받는 가난과 고통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해야 한다.<sup>46)</sup>

칼빈이 시25:13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영적인 축복과 함께 땅위의 현실적 축복도 주신다고 가르친다.<sup>47)</sup> 그러나 성도는 이 땅위에서 수많은 질병, 가난, 박해, 재난 등을 함께 당한다. 하나님은 언제나 성도들이 회망하는 것과 일치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그들을 취급하지 않는다. 칼빈은 말하기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하나님이 두려운 분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기도 하신다. 대부분 우리가 당하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이다. 그 죄가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다” 한다.<sup>48)</sup>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축복을 회수하는 데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축복을 철회하는 이유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상태를 회복시켜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하도록 한다.<sup>49)</sup> 고통과 환란은 자신을 돌아보아 스스로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각하도록 도움을 준다. 칼빈은 분명히

44) *Ibid.*45) *Ibid.*46) *Ibid.*47) *Commentaries on Psalm I, 428-430*48) *Ibid.*49) *Ibid.*

우리의 죄가 원인이 되어 가난, 박해, 등 많은 어려움을 초래되는 것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다고 가르친다.<sup>50)</sup>

칼빈은 죄가 박해와 고통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성도와 교회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고 가르친다. 비록 성도가 가난과 고통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멸하는 불신자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행복한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 그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 행복하다.<sup>51)</sup> 성도는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계속 임하기 때문에 흑암 가운데서도 하늘 아버지의 사랑의 빛을 볼 수 있다.

이사야 29장은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배교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다. 이사야는 예루살렘 거민의 악함, 위선, 미신숭배와 기타 많은 죄 때문에 예루살렘의 파멸을 선포한다.<sup>52)</sup> 예루살렘은 영적 깊은 잠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다.<sup>53)</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 칼빈은 사29:17에서 강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음을 주시한다.<sup>54)</sup> 하나님의 심판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임하지만 심판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가벼운 채찍과 같은 십자가의 고통을 잠시 동안만 경험하게 하지만 불의한 자는 무서운 몽둥이로 가혹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의로운 자는 곧 바로 회복하여 기쁨을 경험할 것이다. 칼빈은 “극심한 심판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을 것이다. 수많은 시험, 위와 아래가 흔들리고, 하늘과 땅이 혼돈하여 온 세상이 뒤 뒤집어 진다 해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신실한 다수를 보호하여, 자신의 교회를 일으켜 세

50) *Ibid.*51) *Ibid.*52) *Commentaries on Isaiah II, 310-327.* Lynn Goding Pattison, 221-22853) *Ibid.*54) *Ibid.*

을 것이라" 한다.<sup>55)</sup>

칼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를 여기에도 적용시킨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것처럼 가난과 시련으로 죽은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에 내리는 가난과 고난을 통해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신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변화시킨다.<sup>56)</sup> 이것이 성도가 경험하게 될 참 기쁨과 즐거움이다. 성도가 버림을 당하는 것 같은 아픈 경험을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어날 것이다.<sup>57)</sup> 그러므로 칼빈은 성도가 가난과 고난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것이라 믿는다.

칼빈은 하나님의 백성이 통과하는 십자가와 고통을 통해 그들의 나쁘고 잘못된 생활을 교정하고 겸손하게 하신다고 믿었다. 비록 박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아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그 고통의 의미를 깨닫는 성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것이다.<sup>58)</sup> 이것은 성경말씀과 성령을 통해 심령이 온유하고 가난할 때만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된 교회에 소속된 소수에게만 임하게 된다.<sup>59)</sup> "주님이 가난한자를 다시 일으킨 후 먼저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하신다. 진실한 성도와 불의한 자가 서로 섞여있지만 악한자의 심판에는 관용이 없다. 때로는 불의하고 사악한 자가 교회의 높은 요직에 있어 진실한 성도를 받아래 짓밟기도 한다. 그들이 교회의 모든 지체를 부패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도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박해와 환란을 통해 그들을 추방하고 진실한 성도가

55) *Ibid.*, 330-335.

56) *Ibid.*

57) *Ibid.*

58) *Ibid.*

59) *Ibid.*

비참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한다."<sup>60)</sup> 칼빈에 따르면 박해와 가난과 비참한 재난 등은 교회를 깨끗하게 정화시킴과 동시에 사악한 무리들을 추방하는 도구 역할을 한다.

스바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활동한 선지자다. 그는 습 3:12-13에서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시련을 통해 교회를 정화 될 동안 인내하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가르친다. 칼빈은 3:12 주석에서 비록 그들이 연단을 받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이라는 사실을 밝힌다.<sup>61)</sup> 그는 바벨론 포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다고 가르친다.<sup>62)</sup> 당시 하나님 교회의 다수가 영적으로 심각하게 부패하여 큰 수술이 필요하였다. 칼빈은 스바냐는 부패한 부분을 잘라내지 않고는 그들의 영적교만을 치료할 수 없어서 강력한 치료의 필요성을 외쳤다고 밝힌다. 그러한 치료를 통해 그들이 겸손하게 된다. 이런 극심한 재난과 고통을 통해 온유하고 가난한 남은 자들이 불의한 사람들과 구별된다.<sup>63)</sup> 주님이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기 위해 특별하게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주장이다.

칼빈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심령은 온유하면서 육체적으로는 낮고 천하고 가난한 신분에 속한 자들이었다고 한다. 남은 자들이 세상적 모든 소유를 완전히 버리지 않는다면 결코 겸손과 가난한 심령을 소유할 수가 없다. 칼빈은 세상적 물질의 풍요는 영적 가난을 초래하고, 물질적 가난은 영적 가난과 겸손으로 인도한다고 믿는다.<sup>64)</sup>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교하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는 그들을 그대로 버려두신다면 온 교회가 부패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가난과 십자가를 통해 행악자를 심판하시고 성

60) *Ibid.*

61) *Commentaries Minor Prophets IV*, 293-298.

62) *Ibid.*

63) *Ibid.*

64) *Ibid.*



도는 겸손하고 온유하게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칼빈은 가난과 환란은 참 교회의 표지(mark)가 된다고 가르친다. 반대로 가난과 십자가를 통한 연단이 없는 성도나 교회는 타락하고 부패하여 영적 무덤과 같이 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확신한다.<sup>65)</sup>

칼빈은 사40:29-30 주석에서 교회가 고통과 가난을 겪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크게 나타난다고 주석한다. 그는 이사가가 유대인들이 율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비난하는 사건에 관심을 두고 있다. 본문은 율법을 위반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서 동시에 신실한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가르친다.<sup>66)</sup>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택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선포되었다.<sup>67)</sup> 포로 기간 동안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지만, 선택받은 소수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강한 구원의 손길이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나타났다. 칼빈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약하고 가난하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이는 사도 바울이 말한 ‘내 능력이 약한데서 강하여짐이라’는 말을 기억해야 한다”고 가르친다.<sup>68)</sup>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하고 가난할 때 나타난다는 이유이다. 이것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교회와 세상, 영적 은혜와 지상의 부요함을 구별하는 표(mark)가 된다.”<sup>69)</sup>

칼빈은 종교개혁으로 박해 받는 기간에 제네바에서 활동하였다. 그는 종교개혁을 수행하면서 박해와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변호하기 위해 1550년 걸림들에 관한 논문을 완성하여 파렐(Farel)에게 보냈다.<sup>70)</sup> 이 책에서 그는 당시 교회가 당한 가난과 박해에 관한 내용

을 많이 밝힌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처럼 화려하고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한 천주교회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당한다.<sup>71)</sup> 어떤 기독교인들은 박해와 고난당하는 참교회의 본질을 오해하고, 영적으로 참 교회를 박해는 천주교회의 외적인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리를 떠나 거짓 교회로 가기도 한다. 그러나 지상 그리스도의 사역에는 이 세상 군왕들처럼 화려함이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그리스도는 초라하고 나약하게 자라는 연한 순과 같아서 칼빈이 속한 참교회도 외형적으로는 연약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천대를 받았다.

칼빈은 어느 교회가 권력이나 부와 영광을 소유하려 시도한다면 그 교회는 머리되신 그리스도로부터 질리게 되며 그리스도의 영적 왕국은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p>72)</sup> 참 교회는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땅위의 부와 영광이 아닌, 가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메고 신음하는 교회라고 믿는다.<sup>73)</sup> 언약의 왕, 메시아, 천상천하의 주인,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가난과 고통의 길을 가셨다면 그의 발자취를 따르는 이 땅의 성도가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길을 갈망하지 않는가? 교회는 참 교회의 표지가 되는 가난과 고통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섭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가난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교회가 세속적 풍요로 넘치고, 부유하고, 편안하고 넓은 길로 간다면 인간적 기준과 지혜와 세속적 권위로 다스리는 세상의 조직과 교회가 구별되는 것이 없어진다. 하나님의 교회는 항상 가난하고 박해를 당하는 역사 그 자체이다. 하나님

65) *Commentaries on Isaiah III*, 237-239. Lynn Goding Pattison, 276-279

66) *Ibid.*

67) *Ibid.*

68) *Ibid.*

69) *Ibid.*

70) John Fraser, 역, *Concerning Scandals* (Grand Rapids: Eerdmans, 1978). 칼빈은 이 책을 쓴 이유를 분별 없는 사람들이 복음이 걸림들을 만들어 낸다는 구실로 복

음을 비난하면서 욕하기 때문이라 한다. 그는 두 그룹을 향해 공격하였다. 첫째는 복음을 싫어하는 인문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조롱하지 않으면 진정한 학문이 아니라고 믿고 있으며, 둘째는 로마교회는 종교개혁을 방해할 하기 때문에 이 논문을 썼다.

71) *Ibid.*, 179.

72) *Commentaries on Isaiah III*, 238.

73) John Fraser, *Concerning Scandals*, 29-30.

의 능력과 섭리는 가난과 박해를 통해 인정을 받았다.<sup>74)</sup> 칼빈은 성도가 가난과 십자가를 통해 마음이 새롭게 변한다고 믿는다.<sup>75)</sup> 성령은 가난과 고통의 신음 소리를 토할 때 신령한 은혜와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이다.<sup>76)</sup>

가난과 고통은 인간적으로 의존하는 거짓된 안전과 희망을 포기시킨다. 인간적 안전이 사라질 때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게 된다. 그리고 가난과 십자가 후에 부여된 능력은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다. 칼빈이 십자가와 가난을 통해 변화된 참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는 표지(mark)가 된다는 말은 의미심장하다. 칼빈은 말씀과 성례를 교회의 표지로 가르친다. 그런데 가난과 고통이 교회의 표지가 된다는 것은 이 가난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는 성도와 교회는 참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땅위의 모든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이 경험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이보다 더 강하게 표현 할 수 없다.

칼빈은 자본주의와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기독교문화 발전을 위해 성도가 이 땅에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동하면서 생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강조하였는지 모른다. 그런 그가 동시에 모든 교회와 성도는 가난과 고통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걸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유재산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또한 초대교회 몬타누스파나 종교개혁시대 일부 과격한 재세례파처럼 스스로 박해를 당하기 위해 찾아다니는 의미도 아니다. 이 세상 재물을 의지하지 말고 그 대신 주님을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이다. 이 세상의 재물과 명예를 의존하고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는 자는 그 재물과 세상적 지위가 저주가 된다.<sup>77)</sup>

74) T.H.L Parker, *Calvin's Old Testament Commentaries*,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Press, 1986), 25-26.

75) *Ibid.*

76) Fraser, *Concerning Scandals*, 181.

77)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Luke*, vol. 1, 174.

#### 4. 교회와 목회자의 근검절약

칼빈은 개인이 소유한 사유재산은 이웃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위탁하였다고 믿는다.<sup>78)</sup> 그는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교회와 공동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는 조건으로 주셨으므로 그것을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야 한다”고 한다.<sup>79)</sup>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들을 주신 목적을 이탈하여 사용할 때가 많다고 경고한다. 그는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을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라고 권한다.

칼빈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양 극단에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생활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의복, 음식, 재물 등 의형적 물질에 빠져 무절제하게 방탕한 생활하는 사람에게 경고한다. 제네바 시의회는 1558년에 빈곤퇴치를 위한 목적으로 '사치금지법'을 제정하였다.<sup>80)</sup> 일부 부유층에서 음식과 의복을 위해 너무 많은 생활비를 지출하면서 사치생활을 하기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가 있었다. 탐욕, 낭비, 방탕, 사치, 각종 경박한 생활 등을 금하는 법을 만들었다. 이법은 부자나 가난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면 부유한 귀부인들이 금 목걸이, 귀금속, 고가 자수품, 등의 사치품을 애용하고 있었다.<sup>81)</sup> 시의회 회의록에는 카드와 주사위 놀이에 관한 언급이 많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게임을 금지하는 근본적 이유는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이었다.

동시에 반대로 성경의 가르침보다 도가 지나치게 사람의 양심에 족쇄를 채워 일상생활에 필요한 온갖 것들을 다 금지하는 행위도 반대한다.<sup>82)</sup> 칼

78) L. F. Schulze, "Calvin on Interest and Property-Some Aspects of His Socio-economic View," 191.

79) 기독교강요, 3.7.5.

80)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His Socio-Economic Impact*, 110-115

81)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64-65.

82) 기독교강요, 3.10.1.

빈은 인간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정신적 즐거움 등을 거절하는 스토의 철학을 비난한다.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즐거움까지 악의적으로 빼앗아갈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감각을 약탈하여 감각 없는 물체가 되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몰인정한 철학을 버리자”고 한다.<sup>83)</sup> 칼빈은 하나님이 인간생활을 위해 주신 모든 선한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권한다.

칼빈은 중세교회의 외형적 화려한 예배를 비판한다. 천주교회는 마 26:10-12에 마리아가 예수의 몸에 300 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은 것을 본받아 많은 돈을 사용하면서 외적으로 화려하고 찬란한 예배드리는 것을 질책한다.<sup>84)</sup> 그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장례를 기념하기 위해 매일 드리는 통상적(ordinary) 예배가 아닌 단회적으로 드린 특별한(extraordinary) 예배라는 것을 강조한다. 칼빈은 교회가 천주교회처럼 돈을 사치로 낭비하지 말고 항상 모든 일에 근검절약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sup>85)</sup>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해야 하지만 그 예배는 영적예배(spiritual)이어야지 돈을 낭비하면서 화려하게 하는 예배는 어리석은 미신적 행위다.<sup>86)</sup> 경건의 규범은 예배의 외형적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낭비되지 않는 단순하고 진실한 영적예배이어야 한다.<sup>87)</sup> 그는 “천주교 교황은 마치 어린아이가 인형에만 몰두하듯 모든 관심을 성찬대, 조각 작품, 화려한 교회당 건물, 금제품, 고가의 대리석, 화려한 가운 등에만 있다. 그러나

83) *Ibid.*, 3.10.3.

84)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and Luke* vol.111, 121-123. 칼빈은 마리아가 고가의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것은 그 당시에만 필요로 하였던 다시 반복될 수 없는 단회적 사건임을 강조한다. 교회는 이렇게 교역이 지拂되는 예배를 반복하지 말 것을 가르친다.

85) *Ibid.*

86) *Ibid.*

87) 기독교강요, 4.10.12. 로마교회의 화려한 의식은 소용없는 허찮은 것들이며, 보는 사람들의 눈을 허망한 화려함으로 속이는 속입수에 불과하다...우리는 그것들이 순전히 웃음거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교회의 위엄은 모든 성도가 함께 모여 믿음과 경건함으로 드리는 예배에 성령이 함께 하는 내면성에 있다”고 중세교회를 비판한다.<sup>88)</sup> 그는 교회가 근검절약한 운영을 하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고 권한다.<sup>89)</sup>

칼빈은 초대교회가 얼마나 검소하게 생활하면서 가난한 자를 도왔는지를 밝힌다.<sup>90)</sup> 그는 “(초대교회) 감독은 검소하고 절제 있는 음식과 의복을 위하여 필요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다. 만일 어느 감독이 사치, 걸치레, 등으로 과소비를 한다면 즉시 동료들의 책벌을 받고, 거기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박탈하였다”고 밝히면서 초대교회를 따르자고 권한다.<sup>91)</sup> 칼빈은 “초대교회 감독 아카시우스(Acacius)는 페르시아인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은 먹거나 마시는 분이 아니시니 쟁반이나 잔이 필요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한 후 교회 그릇들을 녹여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sup>92)</sup> 그러나 칼빈은 중세교회는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무시하고 교회가 외적 화려함과 성직자의 부를 축적하는데 혈안 된 것을 통탄한다.<sup>93)</sup>

칼빈은 성직자들이 검소하고 모범적 생활을 해야 함을 강조한다. 중세

88) *Commentaries on Isatah IV*, 34.

89) *Commentaries: The Gospel According to St. John. part 2* (Grand Rapids: Eerdmans Publishing Co., 1978), 26-27.

90) 기독교강요, 4.4.7. 초대교회헌금의 4강류 용도를 밝힌다. 1. 성직자 2. 가난한 자 3. 교회건물 수리 4. 회외 및 국내 가난한자. 구제비용이 많이 지출 된 것을 강조한다.

91) *Ibid.*

92) *Ibid.*, 4.4.8. 칼빈은 “초대교회 감독 아카시우스(Acacius)는 페르시아인들이 기근으로 죽어갈 때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하나님은 먹거나 마시는 분이 아니시니 쟁반이나 잔이 필요 없다’는 유명한 말을 한 후 교회 그릇들을 녹여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하였다. 암브로시우스(Ambrosius)는 ‘금 없이 사도들을 파송하신 주님은 금 없이 성도들을 모이게 한다.’ ‘교회가 금을 소유한 것은 쌓아 두기 위함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 위함이다. 성전에 쌓아 두기만 한 금과 은을 갖추르 사람들이 얼마나 약탈하였는가? 달리 도울 방법이 없을 경우 사제가 그것을 녹여 가난한 자를 도우는 것이 망명된 자들에 의해 약탈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나?’는 말을 인용하면서 교회의 구제를 강조한다.

93) *Ibid.*, 4.5.18.

교회는 초대교회 아퀼레이아(Aquileia) 종교회의에서 “빈곤한 주교는 영광스럽다”고 결정한 법령을 무시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한탄한다.<sup>94)</sup>

검소와 절제로 모범적 생활을 해야 할 사제들이 마치 군주처럼 많은 하인들을 부리고 건물들을 화려하게 꾸미고, 찬란하고 우아한 의복으로 치장하며, 연회를 즐기는 것이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은 영원하고 어길 수 없는 명령으로 감독의 직분을 받은 자들에게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도록 금하고 검소한 생활을 하도록 하셨는데(딤후1:7), 이들은 마을과 가축에게 손을 댈 뿐 아니라 광대한 지역을 먹여치우고 급기야 국가 전체를 손아귀에 잡고 있으니, 과연 이보다 더 모순된 일이 어디 있겠는가?<sup>95)</sup>

칼빈은 성직자들의 생활은 원래 가난, 검소, 정숙, 겸손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칼빈 당시 천주교 성직자들은 제왕적 권위와 화려함을 추구하였다고 비난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아퀼레이아 종교회의의 법령을 들어 사제들의 생활을 비판한다.

‘주의 사제들에게 있는 빈곤이 영광스럽다’ 그 당시 주교들도 교회를 아름답게 치장하는 것이 교회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탁상을 화려하게 꾸미고, 광채나는 옷을 입고, 수많은 시종들과, 장엄한 궁궐로 교만을 드러내는 것만큼 목자의 직분과 상반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꺼이 겸손과 검소함을 따르고 그것을 배양하였으며,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세우신 그 빈곤을 스스로 실천하였다.<sup>96)</sup>

94) *Ibid.*, 4.5.19.

95) *Ibid.*

96) *Ibid.*, 4.5.17.

이 글에서 칼빈은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한다. 첫째 목회자는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즉 검소, 단순, 겸손한 생활을 해야 한다. 둘째 목회자도 필요한 것을 사용할 수 있으나 독특한 방법으로 사용 하지 말라. 험오스런 오락이나 사치한 생활은 교회의 명예를 손상시킨다. 셋째 초대교회 감독들이 검소하고 가난하게 생활한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목회에 가난과 빈곤을 규칙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다. 칼빈에 따르면 목회자는 반드시 단순하고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한다. 그는 주님께서 목회자를 위해 세우신 규칙은 아주 가난한 생활(indeed that very poverty)이라고 정의한다. 칼빈은 주님이 자신의 생활 모형을 목회자들에게 적용시켰다고 믿는다.

## 5. 구제

칼빈은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우리의 이웃으로 두신 이유와 목적을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고 설명한다. 신15:11 말씀을 주석하면서 하나님이 지상의 모든 가난한 자의 필요를 공급하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겨두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설명한다.<sup>97)</sup> 이 땅에 가난한 자와 부자를 공존하게 하신 이유는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시험하려 하심이다. 칼빈은 덧없는 이 세상 재물을 통해 성도들의 신앙과 마음을 시험하기 위해 재물을 불공평하게 분배하여 가난한 자를 두셨다고 가르친다.<sup>98)</sup> 가난한 사람의 필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참 믿음이 있는 증표(sign)가 된다. 그래서 칼빈은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위해

97) Sermon On Deuteronomy 15:11 *Opera Quae Supersunt Omnia, Corpus Reformatorum*, ed, Francois Wendel, (Pari: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55), 27.337.

98) *Ibid.*, CO. 27. 338.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대리자’, ‘하나님이 위로 하는 자’ 라고 부르기도 한다.<sup>99)</sup>

성도들에게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는 일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훨씬 중요하고 우선임을 지적한다.<sup>100)</sup> 구제하는 선행은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성도들이 교회에 모였을 때 하는 일이다. 그는 십계명의 첫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두 번째 돌비의 이웃을 사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한다.<sup>101)</sup> 칼빈은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진정성은 불행에 당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통해 나타내고 완성되는 것으로 믿는다.<sup>102)</sup> 그는 예배와 구제가 분리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가르친다.<sup>103)</sup>

칼빈은 성도가 가난한 이웃을 도운 일에 대해 그리스도가 보답할 것이라고 한다. 비록 경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개인적 감정과 관계 없이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 칼빈은 주님이 마 25:40에서 ‘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는 말씀을 해석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은 곧 그리스도에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sup>104)</sup> 가난한 형제를 돌보지 않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행위다. 그러므로 성도가 가난한 이웃을 만날 때 구제를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능멸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sup>105)</sup> 마 25:40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는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

99) *Ibid.*

100) *Ibi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단순한 인간만 위로는 일은 헛된 것이라고 가르친다.

101)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Geneva: Librairie Droz S.A., 1984), 255.

102) *Ibid.*, 257.

103)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and Luke vol. III*, 115.

104) *Ibid.*, 116

105) *Ibid.*

벗고, 옥에 갇힌 모든 인류가 그리스도의 가난한 이웃으로 정의한다.<sup>106)</sup>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경계와 국경에 제한 없이 모든 가난한 인류를 사랑해야 한다.<sup>107)</sup>

칼빈은 대부분의 부자들은 불상하고 가난한 사람 도우는 일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부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집어 삼키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세배 이상 차지한다 해도 만족은 고사하고 무엇이든지 조금이라도 자기들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한다.<sup>108)</sup> 칼빈 당시 부자들이 얼마나 구제를 싫어하였는지 다음과 같이 비판한다.

그들은 공유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가능한 하나의 태양조차 독차지 하려할 것이다. 또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과 자연 질서도 바꾸려 할 것이다.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sup>109)</sup>

칼빈은 부자들에게 금욕주의가 아니라 사랑의 법을 시행하라고 촉구하였다. 그는 “하나님은 성도가 자신의 상황을 계산한 후 불상한 이웃을 도우라고 하지 않는다.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사랑의 법을 실천하라고 명하실 뿐이다”고 구제를 강조한다.<sup>110)</sup>

칼빈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구제를 통해 만족하지는 않지만 빈부의 격차가 조금이나마 좁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구제는 미력하지만 재산의 재분배 역할을 한다. 구제를 통한 재물의 상호교환과 순환 작용

106) *Ibid.*

107) Elsie Anne Mckee, *John Calvin on the Diaconate and Liturgical Almsgiving*, 244.

108) *Commentaries on Matthew, Mark, and Luke II*, 116-122.

109) *Commentaries: A Harmony of the Gospel Matthew, Mark, Luke*, vol. I, 123-125

110) *Commentaries on 2nd. Epistles of Paul to the Corinthians*, 113-114.

은 경제적 평등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그는 재산의 상호교환을 강조한다. 그는 바울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다”(고후 8:15)는 차별화된 평등 (a differentiated equality)의 말씀은 구제 활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sup>111)</sup>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점을 구제활동이 보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이다.

하나님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 구제하는 것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처럼 가난한 자도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의 믿음을 시험을 시험하신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 때문에 타인을 정죄하거나 악한 행위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한다.<sup>112)</sup> 칼빈에 따르면 가난한 사람은 이웃의 사랑과 신앙 상태를 점검하는 하나님이 파송한 검사나 전령이다. 그는 하나님이 검사관으로 가난한 사람을 파송하셨다고 한다.<sup>113)</sup> 부자는 반드시 구제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부자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sup>114)</sup>

칼빈은 성도는 가난한 사람에게 가치 없고 값싼 것을 주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는 “자손에게 넘겨줄 세습 재산을 줄이고 토지를 팔아서라고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하라”고 촉구한다.<sup>115)</sup> 그는 부자로부터 구제받는 자가 감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부자는 가난한자를 돕기 위해 파송 받은 대사임을 잊지 말라고 가르친다.<sup>116)</sup> 구제를 받는 가난한 사람의 감정과 태도와 관계없이 부자들은 구제를 계속 해야 한다. 칼빈은 가난한 고아, 과부, 고통당하는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끊임

111)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60.

112) *Ibid.*

113) *CO.* 50. 98.

114) *Ibid.*, 55. 340.

115) *Ibid.*, 45. 205.

116) *Ibid.*, 28. 181.

없이 권고하고 모범을 보였다.

칼빈은 재물은 그 소유주가 선행과 악행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증표를 나타낸다고 믿는다.<sup>117)</sup> 이 세상의 재물로 가난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한 믿음의 소유자다. 성도는 재물을 통해 자신의 보이지 않는 영적 믿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가난과 고통이 만왕의 왕 되신 본성과 천국을 나타낸 것처럼 교회의 가난은 그 교회의 영성과 본질을 나타내게 된다.

제네바에서 목회하는 칼빈을 괴롭힌 일 가운데 하나는 가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았다는 것이다. 그는 시편주석 서문에서 “제네바에는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 허욕과 탐심에 눈이 가려 부당한 이익을 만들어 내는 졸부들도 있다”고 개탄한다.<sup>118)</sup> 1541년 제네바로 다시 돌아온 후 간난한 자, 병든 자, 등을 돌보기 위해 교회가 제도적 조직을 갖추어야 할 필요를 느꼈다.

칼빈에 따르면 성경은 교회가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보기 위한 제도적 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회 내에서 경제적 교류를 원활하게 하려면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물질적 교제가 필수적이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써 지체들을 연합하는 영적교제에는 반드시 그 몸의 지체들 사이에서 봉사과 물질을 교환하는 작업이 수반되어야 한다.<sup>119)</sup>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물들을 상호교환 할 수 있을 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전해질 수가 있다. 이 일을 담당하기 위해 초대교회는 집사를 임명하였다. 집사의 의무에 대해 칼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집사들에게 맡겨졌다...거기에는 두 가지 등급이 있을 것이다. 구제품을 나누어 주는 집사들과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는 자들이다...하나는 가난한 자

117) *Ibid.*

118) *Commentaries on Psalm I, XIV.*

119)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39.

들의 일을 주관하고 시행함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요, 또 다른 하나는 가난한 자들을 스스로 돌봄으로써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sup>120)</sup>

칼빈은 성경말씀에 따라서 교회의 영적 결속을 단단히 하기 위해 물질의 상호 교류가 필요함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1541년 시의회에서 집사 임명을 결정하였다.<sup>121)</sup> 기독교강요에서 설명한 집사의 직무와 의무와 동일한 내용이 시의회에서 가결되었다. 제네바 교회의 집사들은 교인들 사이의 재산이 상통되게 하여 영적인 결속력이 확고해지도록 하였다. 즉 집사들이 매개가 되어 성도들 전체가 영적생활, 물질적 조건, 건강 상태, 등에 대해 관심과 책임을 지도록 하였다.<sup>122)</sup>

칼빈은 이 같은 원리를 따라 교회가 제도적으로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우기 위해 구빈원(hospitals)을 활용하였다.<sup>123)</sup> 1541년 제네바 시의회는 구빈원의 업무 한계와 그 업무를 집사 한명에게 위임하였다.<sup>124)</sup> 구빈원은 제네바에 몰려온 가난한 피난민들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가난퇴치

120) 기독교강요, 4.3.9.

121) J. K. S. Rei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The Library of Christian Classic XXII*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54), 64. 시의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초대교회는 언제나 두 종류의 집사직분이 있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일상적 자선 뿐 아니라 재산과 임대료 부조금도 받고 분배하며 물건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직분이다. 다른 하나는 병자들을 돌보고 간호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관리하는 직분이다.

122) Andre' Bieler, *The Social Humanism of Calvin*, 69-70.

123) J. K. S. Rei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65. 제네바의 구빈원은 칼빈이 도착하기 전인 1536년 11월 29일에 성 클레르(Sainte Claire) 수녀원에 구빈원을 설립하였다. 제네바는 이 구빈원에서 여행하는 이방인, 환자,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

124) *Ibid.*, 64-65. 시의회 회의록은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이미 집사와 구빈원이 있기 때문에 그 규례를 따른다. 혼란을 피하기 위해 네 명의 집사 가운데 한명은 구빈원 물품 구입과 관리를 해야 하며, 그에게 직무에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25)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105.

운동도 전개하였다.<sup>125)</sup> 칼빈은 시의회가 새로운 사업을 전개하도록 하고, 교회 집사를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무노동으로 놀지 않고 사업장에서 일하도록 독려하였다. 가난한 피난민들에게 기술 훈련이나 일자리를 마련하여 노동하도록 주선하였다.

제네바 시는 가난한 사람들이 구걸행위를 못하도록 금지시켰다. 교회 근처에 직원을 세워 사람들이 빈둥거리면서 구걸을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였다. 시의회가 결정한 질서를 위반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은 시의회로 데리고 가서 교육하였다. 10명의 감독들은 제네바 시의 모든 지역에서 구걸 금지 결정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기 위해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았다.<sup>126)</sup> 구걸행위를 금지하면서 구빈원에서 그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였다.

1553년부터 제네바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노인, 환자, 여행객, 등을 구빈원에서 관리하였으며, 모든 예산은 시의회가 담당하였다. 구빈원에는 이런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 특별한 방을 별도로 준비하였다. 목사들은 매 3개월마다 구빈원을 방문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였다.<sup>127)</sup> 이때부터 구빈원은 포도원, 삼밭, 밀밭, 무밭, 소, 돼지, 말, 기타 동물, 직물업과 도기업도 관리 감독하였다.<sup>128)</sup> 구빈원에 필요한 물건을 값싸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수단이다. 1569년에는 구빈원에서 제네바 시 예산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병원치료비와 약값을 지불하도록 결의하였다. 구빈원장은 매주 사업과 예산에 관한 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였다. 칼빈은 교회와 국가가 철저히 조직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다.

구빈원 운영자금은 시 예산, 벌금으로 세입 된 돈, 회사금과 자선금, 구빈원에 회사한 물품의 판매대금 등이다. 집사들은 기부금 모금을 위해 사

126) *Ibid.*, 66.

127) J. K. S. Reid, *Calvin: Theological Treatises*, 65.

128)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105.

람들에게 권유하기도 하였다. 베자(Beza)는 자신의 저서 판권을 구빈원에 넘겨주기도 하였다.<sup>129)</sup>

## 6. 결론

칼빈은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청빈과 고통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르치면서 몸소 실천을 통해 모본을 보였기 때문이다. 가난과 고통은 참 교회와 성도의 증표가 된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보다는 부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 것을 교회사는 증명한다.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때는 외형적 모습은 초라하게 보이기도 하였지만 영적권위와 능력이 강하였다. 세상사람 모두가 교회와 성도를 우러러 보았으며 존경하였다.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성도와 교회를 통해 왕성하게 역사하였다.

그러나 중세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요하며 외적으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정치권력을 소유하였다. 외형적으로는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다. 문제는 금과 은과 권력은 풍족하였으나 예수를 잃어버렸다. 재력과 세속권력에 취하기 위해 세속정부 보다 조금도 뒤지지 않는 권모술수와 음모를 통해 외형적으로 화려한 모양을 만들었다. 로마 배드로 성당과 탑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 험박으로 면죄부를 팔아 모금을 하기도, 성직자들의 아름다움을 장식하기 위해 성직매매도 자행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가 결국은 종교개혁의 바람으로 무너졌다.

129) CO. 21, 752. vol. 55. 210, W. Fred Graham, *The Constructive Revolutionary John Calvin*, 에 재인용. 가난한 피난민들의 관리를 맡은 집사들이 베자 목사가 저술한 시편 주석의 나머지 출판을 당부하였다. 그 책은 베자가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위해 그들에게 10년간의 판권을 위임한 것이다. 그것은 칼빈과 베자 목사의 동의로 이루어졌다.

오늘 한국교회도 중세교회 말기 현상을 보는 듯한 징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교파들이 이런저런 일들로 부끄러운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교회와 성도들이 영적풍요와 세상의 가난과 겸손보다는 외형적 화려함과 풍요를 따르고 있는 느낌이다. 대체로 우리는 내면적 인격과 아름다운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고 화려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성향이 있다. 그래서 빛을 내서라도 성형 수술을 하고 명품의복과 소품을 갖기를 소원한다. 이러한 경향이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언론에 따르면 여러 교단 지도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명예를 얻기 위해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는가 하면 권모술수와 중상모략이 난무하기도 한다. 이런 일들로 인해 사법부의 재판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러한 일들은 칼빈이 기독교강요 제3권 5장에서 당시 중세교회 성직자들 선출에서 나타난 각종 비리 사실을 밝히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게 통탄하고 있는 내용들이다.

칼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부패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종교지도자들의 불법과 탈선이 일반 백성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하였다고 가르친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교훈 뿐 아니라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가르침과 전통을 역행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서 자행되고 있다. 입만 열면 개혁주의를 외치면서도 실상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파괴시키는 일이 아닌가? 선배들이 피땀 흘리면서 목숨까지 바쳐 지켜온 신앙과 전통을 무너뜨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하면 너무나 죄송한 마음 금할 길이 없다.